

유권자에 너무 가혹 '50배 과태료' 손본다

대검, 법무부에 요청...개정 될 듯

공직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이귀남 검사장)는 29일 5·31 지방선거 기간에 각종 부작용을 드러낸 공직선거법 상 '50배 과태료'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건의한 내용은 "선거법 261조 5항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고치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음식물·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없이 수수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로부터 10만원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정작 돈을 준 후보자는 재판에 회부돼도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선관위는 이번 선거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공무원 10명에게 과태료 50배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부과했다.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1명이다.

전남도 선관위도 4건을 적발해 총 1천977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건당 최고액은 1천370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상금은 1천400만원에 이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결혼 위장 입국 도운

알선 총책 등 60명 적발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을 도운 위장결혼 알선 총책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외사계는 29일 위장결혼 알선조직 총책 이모(49)씨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이모(여·33)씨, 국내 위장결혼자 김모(35)씨 등 6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씨 등 10명을 공경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 등 45명은 불구속 입건, 나머지 5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께 '중국 동포와 결혼을 하면 공짜 여행과 350만~4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중국으로 데려간 뒤 동포 이씨와 위장결혼시킨 후 불법 입국시키는 등 그동안 모두 30여건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활빈곤자·이혼남녀·실업자 등을 모집한 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들로부터 1인당 6만5천위안(한화 800만원)을 받아 위장 결혼을 알선, 150만~200만원씩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종교·교육단체 “투표 참여합시다”

5·31 지방선거 “엄정 중립” 선언

가톨릭 - 대주교 공문보내 투표 독려
기독교 - 공명선거·주권행사 기도회
전교조 - 학부모 참여유도 학생 지도
대학 총학생회 - ‘찍어’ 캠페인·공연

광주·전남지역 종교계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5·31지방선거와 관련, 엄정 중립을 지키고 투표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학생들도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다.

◇가톨릭=광주 호남동 분당 이재술(마르코) 주임신부는 지난 28일 미사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의 종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 국가와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신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이에 앞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구 사

제들에게 보냈다. 최 대주교는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을 인용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모든 선거에 있어서 교회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회장 안기영 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 김규옥(광주공원 교회) 목사를 비롯한 목사 30여명이 수시로 모여 공명선거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다. 김 목사는 선거에서 기권하지 않고 교인들 모두 주권을 행사하자는 내용의 기도회라고 설명했다. 남광교회 지원재 목사는 28일자 교회 소식지 알람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란다’며 투표 참여를 권고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 투표하고 감상문 쓰기’라는 과제를 제출을 통한 수행평가를 검토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투표장 출입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데다 준비부족과 편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등이 내부에서 제기돼 포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계기수업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통해 학부모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학생회=전남대·조선대·광주대·목포대 등 대학 총학생회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찍어’라는 캠페인단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캠퍼스 내와 공연 등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젊은 유권자가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구호와 함께 율동·노래·카드섹션 등 공연을 펼쳐 선거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 조선대학교 유권자 운동본부’도 30일 오전 11시부터 대학 내 ‘서석술’ 앞에 모의 투표소를 설치, 미리 투표를 해보는 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찍자”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자원봉사 캠페인단 ‘찍어’ 회원들이 29일 오후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도끼와 피켓을 들고 “찍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학실험 중 폭발 중학생 10명 중화상

광양서 ... 메틸알코올 취급 부주의로

중학교 과학실에서 실험중 화학약품이 폭발, 수업중이던 학생 10명이 크게 다쳤다.

29일 오후 2시에 광양시 금호동 K중학교 과학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이 학교 3학년 최모(16)·김모(16)군 등 2명이 얼굴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학생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화상이 심한 최군 등은 서울 성심병원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도 화상 등의 상처를 입은 류모(16)군 등 나머지 학생 8명은 광양사랑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실험실에는 화학담당 이모(여·35) 교사를 비롯, 3학년13반 35명이

조를 나눠 원소 구별을 위한 불꽃 반응 실험을 하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은 이날 시범을 보이던 이 교사의 조에서 실험기구에 불이 붙어있는 것을 모른 채 메틸알코올(메탄올)을 램프에 붓던 중 갑작스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장학사를 파견 안전교육 여부를 조사 중이며, 각급 학

▲메탄올(methanol)=메틸알코올. 분자식 CH₃OH. 어는점 -97.78도, 끓는점 64.65도 비중 0.7928이다. 독성이 있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가연성이며 인화점은 16도다. 자동차의 내화연료(耐寒燃料)나 포름알데히드 합성원료, 분석용 시약으로 사용된다.

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실험은 시뮬레이션이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나원침 (6841)



연제2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총 353명 353세대
문의 (062)366-4220

대리 거소투표 50대 영장

목표 경찰은 29일 거동이 불편한 집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소투표(居所投票) 용지를 입수,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안군 기초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 윤모(59·지도운 자동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청각장애 선배 돈 5,000만원 가로채

○청각장애인들이 농아학교에서 만난 다른 장애인을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걸렸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1급 청각장애인 김모(2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농아학교 선배인 김모(31)씨에게 “PC방 사업투자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이자를 포함해 7천만원을 갚겠다”고 속인 뒤 돈을 돌려주지 않아 29일 구속된 것.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3년도에 비슷한 수법으로 김씨에게 3천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월드클래스 브리비아 HD모스피탈

BRAVIA

최고의 영상과 사운드
최고의 디자인과 편의성

● 최신형 42인치 HD모스피탈 42W5000-2000
● 최신형 51인치 HD모스피탈 51W5000-2000

수도 배관 (냉·온수·배수) 세정업체

엘케이크린(주)

전문 배관 세정 서비스
수도배관은 청소와 변화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 배관 세정 서비스
● 배관 점검 서비스
● 배관 교체 서비스

엘케이크린(주)
문의 (062) 603-0799